

한국 로스쿨, 이대로 붕괴하나

로스쿨 취업률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과 ‘그래도 이렇게 빨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년(2013년) 2월 졸업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지난해 2월 졸업한 로스쿨 1기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해 취업률이 91.1%에 달해 ‘역시’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금년에는 무려 40% 가까이 폭락한 50.8%로 집계됐다고 한다. 즉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0명 가운데 5명은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다른 대학 로스쿨도 사정은 이와 같거나 더 나쁘다고 한다. 연세대는 61.7%에서 57.4%로, 서강대는 7.4%에서 46.3%로, 이화여대는 56.0%에서 43.5%, 중앙대는 60.0%에서 31.0%로, 경희대는 91.3%에서 47.1%로 급락했다.

졸업생을 배출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취업률이 급락하는 상황을 보니 로스쿨생들도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에 로스쿨 제도라는 것이 ‘소송공화국’이라 불리는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법률수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법률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단으로 선볼리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이미 2000년대 사법시험합격자 1000명시대를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변호사가 넘쳐나 각종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이 같은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앞으로 우리 로스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일제시대 일본의 법시스템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2004년 일본도 로스쿨을 받아들였다. 미국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전국에 74개 로스쿨을 만들었다.

한때 회사에 사표를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붐이 일 정도로 일본에서 로스쿨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최근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로스쿨 통계합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도쿄 메이지가쿠인 대학이 법과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년 입학생이 단 5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히메지돗쿄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으며 도인요코하마 대학과 오미야(大宮)법과대학원이 법학대학원을 통합했다고 한다. 이렇게 로스쿨 인기가 급감하게 된 것은 합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졸업생의 70~80%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24.6%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연간 합격자 수도 목표치였던 3000명에 크게 못미치는 2000명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는 로스쿨 25개를 설립했다.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였다. 금년에는 75.1%로 12%나 떨어졌다. 일본처럼 20%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예측이 많다.

더 안타까운 것은 로스쿨 학비 문제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비싼 학비를 들인 학생들이 백수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고시 낭인’을 없애겠다고 만든 로스쿨이 오히려 ‘로스쿨 낭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533만원이라고 한다. 서민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다. 학생들 중에는 ‘3년 뒤에는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 학자금 대출을 받고 버티자’고 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지만, 취업이 안 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일본은 3년 로스쿨을 마치는 동안 평균 1억15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인정사정’ 없이 공부한다고 한다.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는 한 친구에 따르면 “요즘 너무 바쁘다. 진짜 여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힘들다”라고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어떻게든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로펌에 취직하거나 공직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학생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의식하면서 로스쿨 분위기는 삭막함 그 자체라고 한다. 한 지방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갈수록 자퇴생이 늘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법률 시장에 환파가 불어닥치면서 최고 로펌이라는 ‘김&장’부터 요즘 긴축정책에 들어갔다고 한다. 로스쿨생들에게는 금년의 겨울이 더 차갑게 느껴질 것 같다.

(조선일보 전재 인용)